

헤르만 바빙크: 보편성을 추구한 신학자. 유해무. 윤웅열 요약.

1. 네덜란드 교회의 역사와 분리교회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독특성

네덜란드는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독립을 했다. 그리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교회가 탄생했다. 개혁파는 신앙고백을 강조하면서 국가교회와 구별했고, 유아세례를 인정하면서 성인세례만 고집한 재세례파와도 구별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적대국가 스페인의 종교인 로마 가톨릭만 제약이 있었을 뿐 거의 모든 종교가 자유로웠다. 아르미니우스의 추종자들이 제기한 항변에 대해 도르트레흐 회의는 정죄했다. 그리고 이 총회에서 교회법을 채택했다. 당회를 기본적 회의로, 노회와 총회를 광의의 회의로 보았다. 시편만 부르기로 결정했고 3개의 일치신조를 채택했다. 이런 면에서 네덜란드 교회는 고백교회였다. 개혁교회 목사들은 빌럼 판 오란녜(오렌지 공)을 지지했다.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들로 지역관리의 영향이 교회에 미치게 되었다. 이런 배경이 개혁교회 안에 긴장이 계속되게 했다.

19세기 네덜란드 교회를 개혁한 분리운동의 후에 바빙크

신학은 주지주의와 스콜라주의에 빠져들었다. 신앙과 종교적 신리가 명제들로 정리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동시에 경건주의에서 이에 대한 반발 또한 나타났다. 17세기 칼빈주의는 네덜란드에서 소수파였다. 국민의 삶 전체까지 파고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네덜란드 내에 경건주의 흐름도 나타났다. 이후 국가교회가 고백에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분리운동이 일어났다. 헨드릭 더 콕 목회하던 울름교회에서 시작했다. 더 콕은 기독교강요를 읽고 3대 신조를 재발견했다. 이런 흐름이 전국적으로 퍼졌고 분리운동(afscheiding)이 일어났다. 이들이 기독교개혁교회를 형성했다.

바빙크는 이런 분리주의 배경 속에서 자랐다. 네덜란드신앙고백 28조를 근거로 “교회가 직분이나 그 직분의 봉사에 있어 자신들이 만든 규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우이에 두어 거짓교회임을 드러내게 되면, 성도들은 스스로 분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롭게 살아야 하는 거룩한 사명과 피할 수 없는 의무를 지닌다”고 했다. 개신교회 내에 항상 교회에 대한 개혁적인 요소와 해체적인 요소가 공존한다고 보았다.

2. 출생과 학창시절, 그리고 목회자 바빙크

바빙크의 가문과 출생

바빙크는 1854년 12월 13일에 분리 측 교회 목사 안 바빙크의 큰아들로 태어났다. 바빙크 가문은 개혁파의 영향을 받았고 아버지 안은 분리 측 목사가 되었다. 안은 아버지의 이름인 헤르만을 아들에게도 붙였다. 헤르만 바빙크는 라틴어 학교에서 고전어를 충실히 배웠다. 캄펀 신학교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내 레이던 대학으로 옮길 결정했다. 주변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말렸지만 기어코 유학의 길을 떠났다.

사자굴 레이던으로 간 탁월한 학생 헤르만 바빙크

당시 레이던 대학에는 쿠우넨, 킬러 등이 유명했다. 그리고 자신의 박사학위 지도교수가 될 스홀턴도 유명했다. 바빙크는 그곳에서 언어와 논리학, 철학을 먼저 배웠다. 칸트를 따라 18세기 합리주의를 비판적으로 보았다. 신학적 자유주의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분리 측 학생들과 함께 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졌다. 그는 레이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했고, 과정들을 마쳤다. 석사 논문은 술라어이며머가 성경해석에 끼친 영향이었다.

박사학위 논문: [초빙글리의 윤리학]

그 뒤 그는 박사과정까지 밝기로 했다. 분리교회 역사를 정리하려 했으나 초빙글리의 윤리를 주제로 정했다. 쿠우넨 교수가 스홀턴의 지도를 받길 추천했다. 스홀턴은 초빙글리를 철저한 결정론자로 보았다. 그는 짧은 시간에 박사논문을 마무리했고 학위를 수여받았다.

그의 논문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스홀턴의 지도를 따라 초빙글리를 숙명론에 빠져있었고 스토아 사상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인간론도 플라톤, 세네카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았다. 초빙글리는 윤리적인 면을 강조하고 종교적인 면을 무시했다고 평가한다. 이것은 칼빈, 루터와는 차이가 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죄의 원

인자로 만들고 죄의 종교적 의미도 약화시켰다. 그는 그리스도의 모든 계명을 문자적으로 이해했고 유무상통을 이상으로보았다.

그러나 바빙크는 본 논문에서 초빙글리에 대해 다소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다. 다른 학자들보다 교의적, 스킨라적이지 않고 윤리적인 부분을 잘 강조했다고 보았다. 그가 취한 다른 관점에 대한 존중과 역사적 안목, 윤리적 관점은 다른 개혁자들과 달리 당시 바빙크의 시대 정신과 합의된다고 지적한다. 기독교적인 것을 도덕적인 것까지 확대했다고 보았다.

바빙크의 경건과 목회 준비

신학졸업시험 이후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의 하찮은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다시 간구하오니, 저에게 심령의 겸손과 감사의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레이던 시절에 카이퍼 등을 만나면서 교회와 국가의 발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학위를 마친 뒤 캄펀 신학졸업 시험을 치렀다. 분리 측 사람들이 레이던을 비꼬는 태도를 보여 그는 목사가 도리 것을 포기하겠다고 했고, 동료들이 마음을 겨우 돌렸다. 그는 레이던에 대해 평가하기를 대적들을 이해하도록 훈련 받고, 투쟁과 의심의 골짜기를 지나 본질적으로 옳고 선한 것을 찾게끔 되었다고 했다. 그는 학문성을 위해 모험을 감행했고 그곳에서 부모가 물려준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목회자 바빙크

청빙을 받아 캄펀을 떠나기 전 강의를 했다. 최고선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특강이었다. 하나님 나라가 영적이고 영원하며, 불가시적이고 장래적 종말론적인 실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현재적이고 내재적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 특강을 통해 경건주의적인 경향에 있던 교회, 교인, 신학생들에게 넓은 안목을 제시하려 했다.

그는 목회 청빙을 받았다. 그는 교인들과 교제하고 목회의 실천적인 면을 배우면서 레이던이 주지 못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평범한 여자 교인들이 많은 성경구절을 암송하는 것에 자극받기도 했다. 현대주의의 영향을 정화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자유대학교로부터 청빙이 있었는데, 캄펀의 교수로 내정될 것을 기대하며 거절했다. 그의 기대대로 1882년 8월 총회에서 교수로 임명받았다.

3. 교회통합의 견인차

캄펀신학교의 역사

캄펀신학교는 도제교육으로 목사를 교육하고 있던 분리 측이 세운 학교다. 또 당시 계몽주의와 프랑스혁명으로 인해 교육이 비기독교적이었기에 기독교 고등교육의 필요성도 있었다. 1854년 12월 6일에 캄펀 신학교가 개교했다.

바빙크의 취임강의

1883년 1월 3일 교수 취임 강의를 했다. 신학의 학문성이란 제목이었다. 성경을 신학의 원리, 인식의 원천이라고 천명했다. 신학의 원리는 우리 바깥에 있는 성경이며 성령께서 베푸시는 중생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터를 잡는다고 주장했다. 신학의 원래적 의미는 교의학에 있으며, 교의학의 핵심은 신론이라 주장했다. 그는 자료 자체에서 체계와 원리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변을 피하고 역사적인 방법을 취한다.

신학교 교수진과 바빙크의 초기 사역

바빙크는 교의학 교수로 부임했다. 선임인 헬레니우스 더 콕(헨드릭 더 콕의 아들)은 강의평이 좋지 않아 바빙크에게 내주어야 했다. 그러나 더 콕은 신학교의 중심이었으며 큰 영향을 끼쳤다. 학생들은 바빙크에게는 연구 방법을 배우고 더 콕에게는 인격을 배웠다.

바빙크는 연구에 박차를 가했다. 교의학과 윤리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역사적 접근을 시도했다. 그는 당시 유행하던 윤리신학파를 비평했다. 윤리신학파는 성령의 증거를 신앙의 방편뿐 아니라 근거로 삼으면서 강조점을 성경에서 양심으로 옮겼다. 바빙크는 이것이 슐라이어마허의 영향으로 종교를 인간 내면의 윤리적 측면으로 보면서 성경은 무시하고 성경에 계시된 신인관계를 변질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교회개혁인 애통운동과 카이퍼

1886년 아브라함 카이퍼를 중심으로 교회 분리 운동이 일어났다. 이것을 두고 '애통(Doleantie, 돌레앙시)'이라 한다. 당시 국가교회는 목사로 임직할 때 신조에 서명해야 했는데 신조의 문구가 문제였다. 핵심은 교인 자격과 당회의 자율권에 대한 여부다. 카이퍼는 국가로부터 자유와 교회의 교리적 변질로부터 자유를 추구했다.

교회합동을 위한 바빙크의 노력

바빙크는 카이퍼와 함께 두 교회의 합동을 위해 협력했다. 분리 측은 진리를 위한 투쟁이었다면, 애통은 개혁교회의 권리를 향한 투쟁이었다고 평가했다. 합동을 두고 린더보움, 보이커 등과 함께 바빙크는 합동에 대한 안건들을 제시했다. 그의 안건은 대부분 부결되었지만 합동을 위해 항상 노력했다. 합동에 대한 주요 안건은 통합 방식과 신학교 문제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빙크는 최선을 다했다.

교회합동을 위한 교회론적·교회법적 정치작업

분리 측 내에서도 합동에 대한 의견이 나뉘었다. 애통 측에서 카이퍼는 노련한 실력으로 합동을 주도했다. 하지만 좀처럼 진행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 바빙크는 문제의 원인을 교회론의 차이라고 보았다. 3종류로 보았다. 선택받은 사람들의 회중(HC 21주일-카이퍼), 세례 받은 자들의 회중(네덜란드신앙고백 34조), 신자들의 회중으로서의 교회(27조-텐 호르)이다. 바빙크는 조화롭게 해결할 것을 주장했다. 국가와 교회 간 사이를 두고 법적인 문제들이 있었는데 바빙크는 법률가들과 협력해 합동을 위한 길을 닦았다.

결혼

바빙크는 1890년 요한나 스키퍼르스와 결혼했다. 아내는 가정을 잘 꾸려나갔다.

캠핀신학교와 자유대학교 신학부

분리와 애통측은 1892년 6월 17일 암스테르담에서 합동을 결의했다. 이름을 네덜란드 개혁교회라 칭했다. 합동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합동 교인은 약 40만명이었다. 국가교회 내 동조자를 합하면 60만 정도인데 카이퍼는 이를 바탕으로 수상이 될 수 있었다. 신학교 통합이 여전히 문제였다.

통합을 향한 총회의 첫 결정

총회에서는 바빙크와 카이퍼가 서명한 새로운 안이 통과되었다. 초안을 폐기하고 위원회를 다시 임명해 합동개혁교회와 자유대학교의 관계를 규정할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카이퍼는 바빙크를 자유대학교로 초청했다. 바빙크는 옮길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대학교에서는 청빙을 철회했다.

4. 바빙크와 카이퍼의 협력

바빙크와 린더보움

린더보움과 바빙크는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었다. 주요 문제는 신학교 문제와 카이퍼의 신학 문제였다.

바빙크와 로오만 사건

로오만은 자유대학교 법학부 교수였다. 그는 카이퍼와 대립각을 세웠다. 둘다 반혁명당의 실력자였는데 카이퍼가 그를 공격하면서 실력행사를 했다. 로오만은 카이퍼와 추종자들이 인간의 죄로 변질된 창조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하지 않고 도리어 성경에서 도출한 체계를 가지고 세상을 개혁하려 한다며 비난했다.

카이퍼가 주장하는 개혁파 원리의 승리

바빙크는 둘 사이 문제를 해결하는 조사위원회 의장으로 참여했다. 그는 카이퍼 영향권 아래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카이퍼를 지나치게 신뢰한 바빙크의 실수

카이퍼와 바빙크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했다. 결국 문제는 신학교 문제였는데 바빙크의 의견은 무시되었고 카이퍼는 자유대학교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했다.

성급하게 쓴 두 소책자

바빙크는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자유대학교를 압박하는 책을 썼다. 신학교와 자유대학교. 이후 교회의 권리와 학문의 자유라는 책도 출판했다. 하지만 성급한 결정은 통합 교회에서 그에 대한 비판이 나오게 했다.

계속 타격을 받는 바빙크

두 학교의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다. 아마도 바빙크의 성급하고 순진한 판단 문제였을 것이다. 많은 이들은 캄편을 지키려 한 바빙크를 공격했고 이로 인해 바빙크는 큰 타격을 받았다.

개혁과 원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이후 바빙크는 카이퍼에 대해 단호한 어조로 비판했다. 카이퍼와 신학적 대립각을 세웠다.

통합의 좌절과 교회정치의 피해자

결국 바빙크의 제안은 이뤄지지 못했다. 바빙크는 신학의 학문성을 표방하면서도 신학교육은 오직 교회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빙크의 안 대신 통합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는 안건이 통과되었다.

5. 자유대학교 교수, 말년

쓸쓸하게 캄편을 떠나다

신학교 통합 문제는 린더보움과도 사이가 멀어지게 했다. 바빙크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유대학교로 옮기게 되었다. 그는 1902년 고별강의를 했다. 그는 캄편에 머물면서 개혁교의학을 완성했다.

개혁교회의 교의학과 신학의 중흥을 사명으로 삼은 바빙크는 교회 연합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나아가 합동개혁교회의 신학교육 통합을 위해 투쟁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실패를 맛보았고 아픈 경험을 했다.

바빙크의 왕성한 연구와 결실

그의 교장퇴임특강(1888) 기독교와 교회의 보편성은 보수성과 개방성의 내적인 긴장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균형을 이루는 수작으로 평가받는다. 또 1894년 퇴임특강 일반 은혜는 토마스를 호의적으로 수용하면서 카이퍼를 따르는 내용이다. 분리축의 분리주의적인 특성을 경고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칼빈을 따른 내용이다. 개혁교의학은 많은 자료를 섭렵하고 요약했다. 강력한 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쓸쓸한 바빙크

자유대학교 취임 특강에서 바빙크는 예배를 신학의 뿌리가 아닌 토양으로 본다. 신학은 예배와 종교를 통해 백성과 문화 등에 접촉하게 해줌으로 신앙을 떠날 수 없다고 보았다. 자유대학교의 생활은 쓸쓸한 생활이었다. 동료 교수들과의 관계가 친밀하기까지 가지 못했다.

1905년 총회와 바빙크의 역할

바빙크는 1905년 총회에서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36조 중 21글자의 삭제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정부에 대한 문제다.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교회를 추구했다. 총회는 이 보고서를 채택했다.

프린스턴에서의 스톤강좌

그는 1908년 프린스턴에 가서 스톤강좌를 했다. 계시철학으로 출간되었다. 그는 아우구스티누스, 솔라이어 이어마허, 칸트의 사상에서 인간 의식에 관한 조화를 찾는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영혼을 실제적인 주체로, 솔라이어 마허는 인간의 자기의식이 하나님께 의존적이라 주장한다. 그러면 자기의식은 세계와 동시와 하나님과도 관계를

맺게 된다. 칸트는 인간 정신이 현상의 무질서에 질서를 구성하는 능동적인 역할은 한다고 보았다. 마지막 내용으로는 계시와 문화를 다루는데, 기독교 신앙이 문화와 적대적이라는 주장을 배격한다.

카이퍼의 정치적 야망을 비판하다

카이퍼는 늙을 수록 권력에 더 집착했다. 결국 카이퍼는 선거에 패배하고 재선에 실패했다.

정치와 교육 현장에 몰두

바빙크는 1911년 상원의원이 되었다. 그는 식민지를 기독교의 정신으로 통치할 것, 여성참정권 주장 등을 했다. 도덕적 가치 추구하고 회개를 촉구했다. 교육에 관심을 많이 보였다. 교사모임 기관지에 글을 많이 기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그 이후 개혁교의학을 개정했으며 요약본을 작성했다.

바빙크와 소장층의 운동

합동교회에 소장층이 등장했으며 바빙크는 그들과 함께 갱신운동을 했다.

말년의 바빙크는 변했는가?

바빙크는 말년에 젊은이들에게 관심이 많았다. 그는 극장출입, 카드 문제 같은 문제들 보다는 고리대금업이나 전쟁물자 투기, 삶의 세상화 등에 관심이 많았다. 신조를 유지하되 확장하며, 영감과 성경의 권위, 참 교회와 거짓교회, 국가와 교회의 직무에 관한 신앙고백은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임종

그는 마지막 순간에 시편을 자주 읽어달라고 했다. 16, 86, 8, 103편 등을 자주 읽었다. 1921년 그는 사망했다. 무덤에서는 84편이 읽혀졌고, 마지막 하관할 때 시편 72편을 불렀다.

“내 학문이 아니라 오직 신앙만이 나를 구원한다”

6. 헤르만 바빙크의 신학 총론

교의학이란 무엇인가?

교의학은 신지식에 관한 학문적 체계인데,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모든 피조물에 대해 말씀으로 교회에 계시하신 것에 대한 지식이다. 바빙크는 교의학을 신학의 핵심으로 본다. 그는 성경보다 교회와 신조를 강조하면 정통주의에, 교회와 신조를 아예 무시하면 성경주의에 빠진다고 지적한다. 그는 교의들의 발생을 추적하고 재해석하는 역사적인 종합적.발생론적 방법을 선호한다. 하나님에게서 출발해 그의 사역으로 나가 그에게서 마친다.

계시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기를 알려주는 의도적이고 자유로운 행위이다.

성경

성경은 그 자체가 계시의 일부이다. 바빙크는 성육신에 빚대어 영감을 설명하고 변호한다. 그는 유기적 영감을 전개한다. 그는 술라이어마허의 주장을 옛 영감설과 종합했다. 성경영감과 기록은 창조와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의 절정이며 면류관으로 말한다.

7. 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바빙크는 하나님의 단순성에 기초해 속성과 본질의 동일성, 곧 구체적 속성은 속성마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주장을 고수한다. 그의 구분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신 토미즘을 차용한 것이다. 바빙크는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의 이데아론을 형식에 있어서 수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아쉽게도 철학적 사변에 빠지기도 하면서 신론에서 영향을 남긴다.

삼위일체론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성의 일체성이 세 위격을 무력화시키지 않으며, 삼위성이 본질의 일체성을 제거하지 않음에 있다. 본성은 위격들과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삼위 안에 있으며, 위격들은 서로 구별될 뿐이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본질은 부성과 자성과 영성으로 이루어진다. 비공유적 속성은 각 위에만 해당하는 독특성이다. 그런데도 바빙크는 본질의 일체성과 뿌리가 성부의 위격에 있다고 본 헬라 교부들보다도 일체성을 신성애다 둔 아우구스티누스를 더 선호하는데, 이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유 평가)

그의 기여는 삼위일체론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으로 알게 한다. 삼위일체론을 통해 이신론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세상의 관련성을, 범신론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세상의 구별을 견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삼위일체론은 기독교의 생사가 걸려있는 교의이다. 이런 관심 때문에 삼위일체론은 끊임없이 발전하여 왔다. 삼위일체론은 형이상학적 교리이거나 철학적 사변이 아니라, 기독교의 심장이요 본질이다. 교의의 헬라화를 말하면서 그의 특히 삼위일체론을 사변이라고 폄하하던 시절에 바빙크가 던진 변증이다.

하나님의 작정

그는 작정 전체 내용을 세계이념으로 명명한다. 세계이념은 현실계의 원형적 원인이요 그와 동시에 작동인이다. 바빙크는 토마스의 '하나님은 그 본질에 있어 만물의 모형'이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인용한다. 바빙크는 당시 유행한 후택설과 전택설에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후택설은 예정을 예지로 약화시킬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 전택설은 심지어 죄의 문제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영적 피조물의 마지막 목적인 영생이나 영사를 거당하여, 이전 작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전제된다고 보는 목적론적 순서를 취한다.

바빙크는 하나님의 사랑이 선택작정의 작동원인이며 그리스도는 구원의 공로원인이라 부른다.

하지만 바빙크는 작정에서 순서를 말하고, 철학적 틀을 가지고 예정에 접근하니 논리적 해명을 끝까지 한다. 결국 신학이 송영이라는 사실을 망각한다.

창조

바빙크는 창조론과 인간론에서 펠라기우스주의와 대결한다. 그의 관점은 이데아론이다. 그는 창조 사역이 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임을 밝힌다. 그는 당시 유행하는 지질학, 과학에 대응한다. 그리고 그는 성경이 과학에 대해 훈수를 두지 않고 다만 계시와 신지식을 위한 책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인간론에서 바빙크는 진화론과 직접적 대결을 벌인다. 진화론에는 죽음이 지닌 징벌의 성격이 아예 없다. 세계의 목적성을 부인한 채 지속적인 진화만 있을 뿐이다. 그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라 협의와 광의의 형상을 말한다. 그의 형상론에는 철학적 요소도 많이 들어있다.

그는 언약을 강조한다. 그는 낙원언약을 행위언약이라 부르는 이유를 영생을 해행위의 길, 즉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언약론의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을 책임적인 존재로 대우하신다는 것이다. 바빙크는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을 낙원의 복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지 않았을 아담이 소유했을 영원한 복을 베푸신다. 따라서 개혁파는 낙원의 생명나무를 성례전적으로 행위언약의 표지로 보면서, 타락 전 흠이 없는 상태를 영광의 상태와 일치시키지는 않았다.

8. 예수 그리스도

죄

바빙크는 섭리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존이나 통치라는 말을 더 선호한다.

원죄론은 교의학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인데, 바빙크는 단지 성경의 증거와 죄의 증거에 대해서만 말한다. 아우구스티누스와 개혁자들을 따라 바빙크는 죄를 선의 적극적인 결여로 부른다.

그러나 바빙크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죄는 여전히 정의내릴 수 없는 어두운 세력이며 이해나 해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는다. (유 평가)

은혜언약

일반은혜는 죄를 억제하기는 하지만 변화시키거나 극복하는 힘을 갖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한다. 언약론을 다루면서 바빙크는 평화언약을 함께 다룬다. 평화언약은 신적 본성 내에 있는 삼위간의 관계와 삶을 언약적인 삶으로 이해한다.

바빙크는 평화언약의 불충분함을 극복하기 위해 영원에서 체결된 삼위 하나님 간의 언약과 시간계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체결된 언약을 일치시키려는 그릇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바빙크가 스코틀랜드 교회의 언약론의 전통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19세기 하르낙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을 부인하는 풍조가 강했다. 19세기 현대신학에서는 양성론이 헬라교회와 신학에는 합당했으나, 현재는 종교적인 가치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칸트, 피히테, 셸링 등은 역사적 그리스도와 이념적 그리스도를 분리한다. 슈라이어마허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전면에서 부각시키고, 리츨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강조한다.

바빙크에게는 기독교가 교의학의 출발점이 아니라 중심점이다. 교의학의 심장인 기독교에는 기독교의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생명이 박동친다.

바빙크는 성육신을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자체가 아니라 이에 대한 준비로 보았다. 헬라신학을 거부하고 안셀무스를 다룬다. 그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고난과 죽음의 고백이 살아있으며 신학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면, 당대의 현대 신학자들의 시도를 논박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오나화시키고 은혜를 얻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주체가 되셔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과 화해하기도 한다.

그는 대속사역을 우주적으로 보려 한다. 전 세계와 인류의 재창조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열매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가치가 있다. 즉 인류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보호하실 때까지 보존받았다. 이러한 특별 은혜로 인해 일반 은혜가 가능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창조의 유기체를 회복하였다. 창조가 흠도 없고 티도 없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의 인격과 분리될 수 없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중보자의 인격으로 자기 사역을 행하셨다. 이리하여 바빙크의 기독교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중심과 일체성을 갖고 있으며, 아타나시우스와 칼세돈 이후 안셀무스와 개혁자들의 입장에 동조함과 동시에 당대의 현대 신학의 경향을 소화하여 새로운 고전적 기독교를 창출할 수 있었다.

9. 성령 하나님

구원의 서정

바빙크는 구원의 서정을 다룬다. 그는 근원적인 부분을 고민하면서 칼빈과 같이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과 교제가 앞서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순서를 다루면서 소명이 중생이나 신앙 앞에 와야 한다고 본다. 죄가 죄과와 오염과 곤고로 행위언약을 파기시켰고, 형상의 상실을 초래했으며, 썩음에 종노릇하게 만들었듯이, 그리스도의 은덕은 먼저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정립시키고(칭의), 나아가 형상을 회복시키며(성화), 마지막으로 천국을 상속하게 만들고, 죽음을 이겨 영생에 참여하게 한다(견인과 영화).

그가 제시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소명-중생-칭의-성화-영화.

유아 세례 관련한 내용을 다룬다. 유아에게는 성령님께서 말씀 없이 역사하신다. 협의의 중생에는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중생사역인 소명을 포함한다. 이것을 주입된 은혜라고 표현한다. 선택받은 사람들의 중생이 세례에 선행한다는 주장이 당시 애통 측에서 강하게 등장하였다. 바빙크는 언약의 자녀들의 중생의 시점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이들의 법적 지위를 외적 언약과 내적 언약으로 양분하여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다만 그는 개혁신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서, 성령님은 말씀 없이도 어린이의 마음에 역사하시며, 특히 유아로 죽은 교종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교종의 자녀들은 고백이나 삶에 있어 그 반대가 나타날 때까지, 선택받은 사람들과 중생자로 간주될 수 있다.

교회

바빙크의 교회론은 서방교회의 전통에서 있다. 예배를 통해 교회를 이해한 고대 교회의 교회론은 빠져있다.

그는 가시 교회 내에서 제도 교회와 유기체 교회를 구분한다. 제도 교회와 유기체 교회 사이에 우월권이 없으며 이 둘은 상호작용하면서 존속한다. 교회는 제도적인 측면을 지니며, 제도 교회는 유기체 교회를 구현하는 필수적인 기관이다. 그는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제도 교회를 선행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한다.

그는 독립 교회 정치 제도를 반대하면서 프랑스에서 발생한 총회제도를 선호한다. 협의의 회의와 광의의 회의로 노회와 총회를 파악한다. 하회, 상회 개념은 거부한다.

왕 제사장 장로를 직분과 연결시킨다. 목사직은 선지자, 장로직은 왕, 집사직은 제사장에서 근거를 찾는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스스로 체계에 빠진 경우이다. (유 평가)

성례

그는 자동적인 성례관을 가진 로마 가톨릭을 비판한다.

성례는 복음 곧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약속에 대한 인일 뿐 아니라, 언약 자체에 대한 인이다. 세례는 중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이다. 그는 중생전제설을 비판한다.

그는 성찬론에서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연합에 주목한다. 성찬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종말

그는 천년설을 다소 길게 취급한다. 전천년설을 세세히 설명하면서 부분적 진리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논박한다.

10. 바빙크의 평가와 영향

바빙크 연구사와 그의 영향

다양한 학자들이 영향을 받았다. 칼빈 신학교 출신들. 자유대학교, 캄펀 신학교 후임들 등. 한국도 벌코프를 통해 간접적 영향을 받았다.

보편성의 신학자

유해무 평가: 바빙크는 개혁신학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보편성을 추구하였으나 완전히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개혁신학은 로마 가톨릭이나 루터파와 달리 뿌리와 이유를 추구함으로써 신학적 탁월성을 지녔다고 보기 때문에, 그는 어떤 각론이라도 신학적으로 해명하려고 했다. 개혁신학의 핵심이며 신학적 해석의 기초가 예정론이라 하더라도, 바빙크는 시간계에 매어있는 유한한 존재인 신학자는 오직 성경의 계시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었다.

구원의 확실성이 선택과 평화언약에서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속을 헤집고 다닐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바빙크가 개혁신학의 특징인 예정론으로 때로는 아찔할 정도로 사편적 유희에 빠졌던 것은 안타까우면서, 동시에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또 당대의 신학 풍조를 따라 예정론을 개혁파의 특성으로 삼은 것도 돌아보면 지나친 면이 있다. 성경을 신학의 원리로 삼았던 그가 성경을 요약하는 신앙고백을 넘어 개혁파 원리를 추구한 결과이기도 하다.

내재적인 체계를 거부하고 성경에서 나온 체계를 시도했지만, 동시에 체계를 위하여 몇몇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인해 사변의 흔적을 남기고 마는 체계의 황포에 휘말리고 말았다. 그가 누린 신학의 힘이 약점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것은 그가 수용했던 유기체사상이 지닌 낙관주의의 반역이다.

11. 바빙크와 한국 교회

비판받아야할 점이 더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바빙크의 시도를 존경한다. 하나님 앞에서 보편성을 추구하면서 그 때문에 외면당하고 외로움에 빠졌지만, 그는 이 보편성의 확신 가운데 살았고, 사역했다.

한국 교회에 개혁파적인 기독교 세계관이 소개되었을 때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성도들까지 각성되지 못했다. 교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기독교세계관 운동은 교회를 개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도 변혁시킬 수 없을 것이다

바빙크의 보편성 추구를 따르다 함은 그를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대답을 찾는 것이다. 그것이 한국 교회를 개혁하고, 한국 사회를 회복하고 살리는 길이다. 왜 다른 교회들이 참고할 만한 모델을 우리는 계발할 수 없겠는가! 이런 필요성과 사명감을 지닌 한국 교회에게 바빙크는 뛰어난 선생이요 좋은 안내자가 될 것이다.